성 금요일 화답송

아버지, 제 영혼을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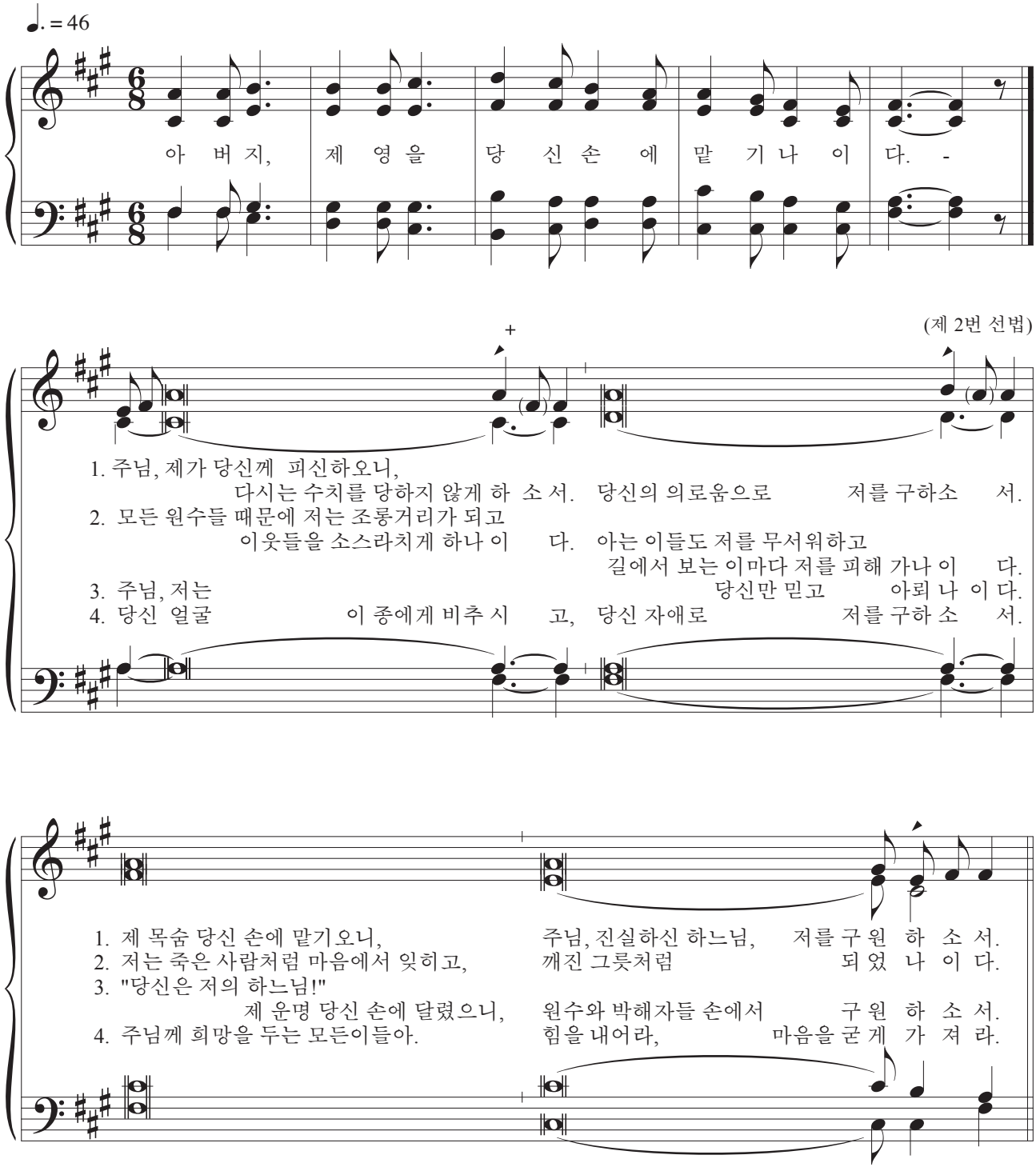
백 남 용

